

“귀농·귀촌 유익한 정보 확인하세요”

전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24~27일 온라인 개최... 시·군별 맞춤형 정보 제공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귀농귀촌부)가 주관하는 '2021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이하 상담홍보전)'이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전라북도 귀농귀촌 온에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상담홍보전은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관한 관심을 반영해 방역지자체 최초로 온라인(비대면)으로 개최된다.

박람회 현장의 핵심 콘텐츠인 전북도와 13개 시·군(전주 제외)의 귀농·귀촌 정보와 홍보영상은 온라인 공간에서 구현된다.

특히, 온라인 전시관에는 시·군별 임시거주시설, 귀농·귀촌 정책 및 귀촌정보, 주작목 경영비용, 시·군별 홍보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1:1 맞춤형 상담을 위해 시·군별 온라인 화상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채팅 및 전화상담도 준비되어 있어 지원정책, 지역정보, 주거 등 귀농·귀촌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홍보전은 홈페이지(<http://jreturnhome.kr>)를 통하여 온라인 전시관에 참가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카테고리 중 온라인박람회를 클릭하면 화상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화상상담은 24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화상상담이 진행되며, 6월 24일, 26일에는 7개 시·군(익산, 정읍, 완주, 무주, 장수, 순창, 고창) 화상상담이 가능하고, 25일, 27일에는 6개 시·군(군산, 남원, 김제, 진안, 임실, 부안)의 화상상담이 진행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상담홍보전을 통해 도시민들이 전북도에 대한 이해와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2021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이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자살시도자 정서적 안정·예방 강화

전북도, 연계 강화 위해 응급의료기관 찾아가는 간담회 추진

전북도가 도내 1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살시도 내원 환자에 대한 연계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찾아가는 간담회는 전북도, 전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관계자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응급의료기관 관계자 간 소통의 자리다.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자살 시도자의 신체적 손상, 정신치료 이후 사후관리 및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

해 각 기관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살 시도 경험에 있는 사람은 다시 자살 시도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20~30배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자살 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자살 재시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관리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0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자 수는 3만3,451명으로 집계됐으며, 도내에는 1,152명이 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호상 기자

與, 조국 부녀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에 “금도 넘어”

이낙연 “20년 넘게 신문 몸 담은 사람으로서 수치 느껴” · 박주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 진성준 “환멸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삽화를 내용과 관련이 없는 성매매 유인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를 향해 “금도를 넘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장관과 그 딸의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20년 넘게 신문에 몸담아 청춘을 보냈고, 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분노와 함께 수치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과 그림을 범죄 관련 기사에 사용했던 몇몇 언론들의 과거 행태를 본받으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장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기본을 망각해서

는 안 된다. 조선일보는 기본을 망각했고, 금도를 넘었다”며 “조선일보와 기사 당사자가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속히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선일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항의글을 함께 게재하며 “언론이 어찌 이럴 수 있나. 환멸스럽

다”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조국세 부녀와 독자들에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리며 “제 딸 관련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두번째 사과”라며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뭉텅다”며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장은 23일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과 3구역 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

전북도, 어린 쏘가리 3만마리 하천에 방류

전북도가 내수면 토산 어종 자원회복을 위해 자체 생산한 어린 쏘가리 3만 마리를 도내 하천에 방류한다.

23일 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내수면 생태계 복원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자체 생산한 어린 쏘가리 3만 마리를 24일, 29일에 남원, 완주, 진안 3개 시·군 하천에 방류한다.

방류 예정인 어린 쏘가리는 연구소에서 사육환경과 먹이공급 방법 등 다양한 시험연구를 통해 완전 양식이 가능한 어종이다.

올해 5월 자체 사육관리 중인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확보해 6월까지 체장 3cm 이상의 건장한 종자로 키워냈다.

연구소는 3년 후에 30cm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쏘가리는 생김새가 민첩하고 육식성

으로 어릴 때부터 작은 물고기나 새우류를 주로 즐겨 먹는다. 민물고기 중에 가장 뛰어난 맛으로 횡간과 매운탕으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한다.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인 베스나 블루길 등을 포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내수면 생태계 회복 및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는 어종이다.

그간 연구소는 지난 2011년 쏘가리 방류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29만 마리를 도내 주요 하천 및 저수지에 방류했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수산종자 생산·방류로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의 토산 어종 자원회복과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새만금개발청, 불안 하시면 주민에 추진내용·일정 등 설명질의·답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근 지역인 부안군 하서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3일 부안군 하서면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은 비산도매에 직접 노출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배후지역(부안군 하서면 불등마을 등 4개소)에 3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km(26ha) 구간에 수목을 심는 사업이다.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개발청은 설계가 끝나는 즉시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올해 말까지 방재숲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주민 약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 추진내용과 일정,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이뤄졌다.

지역 주민들은 불등마을 주변 방재숲 조성지 내 배수로 정비, 큰나무 식재를 통한 산책로 그늘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유진 국제도시과장은 “이번 새만금 방재숲 조성사업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우기 대비 육상태양광 현장 점검

강팔문 사장, 현장 방문해 관계자 격려·철저한 현장 관리 당부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장은 23일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과 3구역 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강 사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기자재 사용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과 3구역 발전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회의 지역상생방안에 따라, 공

사에 지역업체 40% 이상이 참여하고, 50% 이상의 지역 기자재 사용을 준수하고 있다.

강팔문 사장은 “무더위에 고생하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표현”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다. 내년 초 상업 운전 개시까 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2021년 4월에 착공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1구역 사업과 함께 발전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회의 지역상생방안에 따라, 공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